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3. 배휴! <끝>

인명(安名)이라는 이름으로 제방에 회자된, 황벽이 배휴를 깨닫게 한 선화가 있다. 황벽에게 배상국이 불상 하나를 모시고 와서 앞에 꿇어 앉아 말했다.

법도 없음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아니고 감을 사 주어서 감사하는

"스님께서 이름 지어 주십시오(請師安名)." 선사가 "배휴!" 하고 불렀다. 이에 배상국이 대답하거늘, "이름 다 지었소." 배휴가 절을 하면서 말했다. "스님께서 이름 지어 주신데 감사합니다(謝師安名)." (선문열승) 394칙 '존상' 이 우스꽝스런 놀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배휴가 황벽에게 불상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간청하였고, 황벽은 "배휴" 하고 불렀고, 이 부름이 그의 간단한 명호인 직절의 교육법이고, 배휴는 무심이고 배휴는 일심이고, 배휴의 대답은 일심이니, 어찌 이름을 지어 주지 않겠나 할 것인가? 철저한 자기 인식, 마음 밖에 따로 한

황벽의 '이름부르기' 철저한 자기 인식을 위한 가르침 선종 삼제윤회 끊기 위해 세번 손찌검한 선화 전해져

'나'일 따름이다. 또 뒷날 선객들은 394칙 '존상' 이야기에 계승을 붙여 깊은 의지를 발명하고 있다. 오색으로 단장하여 손에 받들고 왔거늘 五彩班來掌上(호는 억지로 거짓 이름 붙였네 老胡剛爲立處名(그대 지금 조사들을 조월코자 한다면君今欲得超諸祖(모름지기 금강의 정수리를 걸어가거라 須向金剛頂巔行 -보냉음

위 계승, 1행은 불상의 행상을 존귀하게 생각하여 오색을 단장하여 모셔왔지만, 이런 생각 모두 자기 속에 있는 자가 보장(自家寶藏)을 망각하고 외경에 마음 빼앗겨 표피적인 6식을 채우기 위해 해매는 꼴이다. 2행은 배휴의 청에 억지로 거짓으로 짐짓 이름을 붙여준다. 여기서 노호(老胡)는 무심에 제함을 황벽 자신이 고, 또 거짓으로 이름 붙여준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다. 3행에서는 시의 흐름이 반전하여 우리의 깊은 곳에 손을 들어 밀며 깨우치고 있다. 그럼 금강의 이미지는 무얼 말하는

가? 바로 조사들이 말하는 "풀머리 머리가 밝고 밝구너(佛頭明明白白)"한 만물과 일체의 도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힘이 있는 것(有爲)의 일차자(一着子)를 이른다. 가령 눈명이를 굴릴 때, 눈명이가 구르며 처음 달는 바닥의 눈과 눈명이에 눈이 닿는 그 절라. 이것을 선문에서는 '다리 아래를 보라(照顯脚下)', 특별히 기록할 것이 없다(別無奇特)'라 힌트를 준다. 황벽은 당부한다.

티끌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塵勞滄海脫事非常 / 밧줄을 단단히 잡고 온 힘을 기울여라(繫繩頭放一場 / 뼈속에서 스며드는 추위를 견디고선(不是一番寒徹骨 / 어찌 대화가 그 향기로 그대를 즐겁게 하리 爭得梅花撲鼻香 -황벽은

임제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황벽의 견해가 명료하고 단호하였던가를 보여주는 선화가 있다.

황벽이 엄관 제단 회상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회상 무제의 폭정을 피하여 공부하던 뒷날 대중(丈中) 황제 선종의 물음에 경책을 주기 위해 세 번이나 손찌검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황제가 된 선종은 황벽에 대해 남은 인상 때문에 추행사문이라는 호를 주려 하였다. 그 때 재상으로 있던 배휴가 간언하기를 "선사가 그때에 세 번이나 손찌검을 한 것은 폐하의 삼제윤회(三際輪廻)를 끊어주기 위한 것이니"다 하니 선종이 그를 기리어 단제(斷際) 선사라고 사호하였다.

그리고 배휴가 엮은 <안능록(宛陵錄)>에 있다. 황벽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여록이다. 특기할 것은 깨짐의 방법으로 회두(공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 간화선이나 바로 직전 삼속인 임제 의현에게로 전수되어 오늘날 '임제종은 간화선이다'라는 말의 근원이 된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⑧ 두부숙 고추튀김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꼭 필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고춧가루입니다. 김장에 쓰는 고춧가루는 10월 경 매운 맛을 내는 고추(Capsicum anuum)의 열매를 말려 곱게 빻은 것입니다. 고추의 학명은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Capsicin)에서 유래된 것이죠.

니다. 침체에 고춧가루가 가미되면서 지금의 김치가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17세기 전에 먹지 않았던 우리의 전통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고추 장입니다. 고추의 도입 후 그 가루를 발효식품화 한 고추장은 이제 우리의 독특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고추는 먹거나 보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최루탄으로 사용되었는데, 옛날에는 전시(戰時)에 고춧가루를 태운 연기를 피망고추,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진 화초고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고추는 17세기 중기를 통해 전래 최루탄·동상 예방 용도로 사용되기도

적진에 날려 보내 재채기 나 콧물 얼 일 키고, 나 콧물 얼 일 키고,

한국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남아메리카입니다. 고추는 16세기 이후 스페인 함대에 의해 유럽에 알려진 이후로 17세기 중엽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지 않았던 것일까요?

고추는 가지과 식물로 원산지에서는 다년초(多年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버려서 일년초(一年草)로 취급됩니다. 여름에 흰색의 작은 꽃이 피며 그 자리에 열매가 달립니다. 잎은 짙이나 무덤에 이용하고, 털 잎은 열매는 풋고추라 하여 여러 가지 요리에 이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 채소를 조금에 절여서 먹는 침채(沈菜)가 존재했습



두부숙 고추튀김

재료: 고추, 두부, 깨소금, 된장, 식용유

만드는 법

- ① 고추는 길이로 반으로 길러서 씨를 빼준다.
② 두부는 깨소금과 된장으로 간해서 으개 둔다.
③ 고추 속에 으개 두부를 가득 채우고 120℃의 기름에 튀겨준다. 예쁘게 썰어서 담아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끝>

개는 속의 연꽃 황지우문학과지성사, 1991년 값 6000원

연꽃처럼 피어나는 불교적 감성

황지우는 195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여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그의 시집 가운데 네 번째 시집인 <개는 속의 연꽃>(1990)에 높고 깊은 불교적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테면 "개는 속의 연꽃을 없애다 / 善光의 거품인 양 / 눈곱만 눈으로 / 게가 뼈끔뼈끔 담배연기를 피워올렸다 /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연꽃을 / 개는, 그러나, 볼 수 있었다"(개는 속의 연꽃' 부분)고 대상의 감각화와 함께 언 어도단의 선적 기법을 시에 구사한다. 대상의 감각화는 "원효사 처마끝 양철 물고기를 건드는 눈송이 몇 점 / 돌아보니 동편 구름양으로 자욱하게 물러가는 눈보라(//중략// 무등산 전경을 뿌옇게 좁막는 저녁 눈보라여 / 나는 별받으러 이 산에 들어왔다"(눈보라' 부분)라고 하여 시 읽는 재미를 준다. 시 '연산(靈山)'은 의상대를 대상화

하여 원효와 의상의 일화를 대화기법으로 사용한다. '금곡(金谷) 영산'에서는 "눈 덮인 금곡 영산 암벽에 / 사선으로 들어가는 저녁노을이 / 잔뜩 인상 쓴 마에불을 / 읊조린다"(부분)는 표현들 역시 선명한 감각을 이룬다. 그의 시에서 지붕 처마에 매달린 풍경은 여러 번 비유되는데, 다음 부분이 절정이다.
극락 신고
정박 중인 배
무위사 극락전 처마에
이요, 물고기 한 마리 낚였다
배가 출렁거렸고
팽고랑, 팽고랑,
구리물고기,
배배기를 팽팽하게 부풀린 허풍:
THE ROPE OF HOPE라고나 할까
닷물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수렁 속의 전갈문자

우리 마음라는 배가 물을 쓰지 못하고 공공거리고 있으면 지가 시름시름 앞는다 무위도 아프다는 거다 '희망의 끈'에 걸린 주둥일 괜히 잡아채면서 우리물고기, 여기가 극락이요 여고야 공락이여 요동친다
- 'THE ROPE OF HOPE' 전문
활달하고 감각적인 비유, 제목을 영문으로 쓴 파격, "여고야 공락이여"라는 방언의 사용, "무위도 아프다는 거다"라는 경구가 시 읽기를 재미있게 한다. 이러한 파격의 형식은 다른 시 '경고'에서도 보여준다.
담뱃갑 문자와 도형을 시에 그대로 삽입하고, 후반부에는 조주 스님의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수저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사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속설로 2007년 12월이 되면 정해년의 기운은 다해 떠나가고 무자년의 새로운 기운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해야한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 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증거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 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보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흥안이 쉽게 풀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원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신사에서는 지갑 사용실부의 성명고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본인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성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뚝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운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면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손금니루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향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